

초점

사이버스페이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성선제(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1. 서론

20세기 후반의 디지털 정보혁명은 실로 500여 년 전의 인쇄혁명에 맞먹는 대변혁이다. 이 혁명은 지금까지의 매스미디어 혁명을 거꾸로 뒤집어놓을 정도로 정보의 유통방식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앙화된 수직적·폐쇄적 구조였다면 21세기 정보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은 분권화된 수평적·개방적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 및 양자의 융합에 따른 기술적 특성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은 200여 년에 걸쳐 세상을 바꾸었으나, 통신과 컴퓨터의 결합으로 촉발된 현대의 정보통신혁명은 아주 짧은 기간동안에 세상을 바꾸고 있다. 정보화의 추진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과거 산업사회로부터 지식정보사회로 급속하게 진보하며 문명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 추세는 현대의 첨단과학기술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며, 첨단과학기술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정보화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국민생활과 국제경제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통신망의 상호 연결은 물론 초고속 통신망의 확충 등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다양한 정보검색 및 정보제공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상업 영역에까지 그 범위 및 기능이 확대되어 고도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사회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조

성되고, 인터넷·전자상거래·전자정부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패러다임이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일반적으로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소비자 간에 사이버스페이스를 이용하여 전자정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거래 행위를 지칭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상용화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획기적인 서비스로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 각국은 인터넷에서 본격적인 전자상거래가 시작됨에 따라 새로운 범세계적인 지식기반의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국경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지구촌이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구촌 전체가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하나의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나 각종 정보통신망 환경의 새로운 서비스는 개인이 서로 교섭하지 않고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각종 거래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도의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사이버스페이스란 무엇이고 사이버스페이스가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것이 현실의 공간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즉, 사이버스페이스를 법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인정하여 현실의 공간과 다르게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방법의 범주에 포함시켜 현실의 공간과 똑같이 취급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버린 사이버스페이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단초를 얻고자 한다.

2.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의

사이버(Cyber)라는 말은 ‘조타수’ ‘통치자’ 혹은 ‘운전자’ 등의 뜻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말은 미국의 수학자 Norbert Wiener가 정보처리 과정을 cybernetics라고 명명하면서 ‘인공두뇌 연구’ ‘컴퓨터로 자동 제어되는’ 등의 현대화된 의미로 발전되었다. 즉 사이버가 의미하는 기술적 변화와 발전이 통신기술과 결합되면서 소위 정보통신

혁명의 과정을 거쳐 정보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기회의 땅이자 인류가 한번도 체험하지 못한 암흑의 공간일 수도 있다.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는 말은 1980년대 초 William Gibson이라는 당시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소설가의 『Neuromancer』라는 공상과학소설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후 오늘날 일반적인 용어로 정착되었다. 이 소설은 정부를 대체한 대기업들과 보안자료를 놓고 전쟁을 벌이는 컴퓨터 해커들을 다룬 것으로, 그 내용의 대부분이 유형의 물질적 존재라고는 전혀 없는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가상의 무대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데 Gibson은 이러한 무대를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라고 명명하였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시대는 1990년대 초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의 발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동안 사이버스페이스 또는 온라인으로 일컬어지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사이버스페이스, 온라인, 인터넷 등의 정의는 세부적으로 상이할 수 있으나, 정보화를 설명하는 도구로서의 정의는 크게 보아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를 기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인터넷 초기에 대다수가 동의하는 신비스러운 점은 아무도 인터넷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정부주의 및 자경주의가 판을 치던 무법의 프런티어(Lawless Frontier)로서 “황야의 서부” 은유가 사이버스페이스를 가장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3. 사이버스페이스의 유추

사이버스페이스의 규제를 시도하는 자에게 근본적인 질문은 사이버스페이스가 현실의 공간과 과연 얼마나 다르냐이다. 인터넷이 정보를 보내고 받는 단순히 또 다른 형태의 하이테크 수단이라면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적용되는 법과 정책이 여기에도 아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차이점이 단지 정도의 차이라면 법 분야에서 약간의 미세한 조정만이 필요할 것이며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 하지만 온라인 세계가 오프라인 세계와 뚜

1 Stuart Biegel, Beyond Our Control? 4.

렛이 구분될 만큼 다르다면 규제를 하려고 하는 자의 임무는 한층 더 복잡해질 것이다.

1990년대 버전의 인터넷은 더욱 더 새로워지고 세 가지 특징을 갖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것은 메시지의 즉각적이며 지구적인 전송수단을 제공하고,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였으며, 그리고 유례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많은 이들은 인터넷이 그 전의 다른 형태의 통신수단들과 충분히 다르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정확한 자리매김에 대한 논의는 *Reno v. ACLU* 사건에서²⁾ 정면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인터넷 관련 사건에서 변호인과 법관들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본질과 이와 가장 유사한 유추에 대한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다. 정부측 변호인인 법무차관은 인터넷이 도서관과 유사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Breyer 대법관은 인터넷은 전화와 유사하다고 견해를 밝혔으며, O'Connor 대법관과 Kennedy 대법관은 인터넷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려는 목적인 전통적인 공적 광장에 해당하는 거리나 공원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는 또한 인터넷은 방송매체와 더 유사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³⁾

법원은 인터넷이 도서관 또는 쇼핑 물에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다른 유추도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20세기말 인터넷의 출현과 그 역할은 사실 위에서 언급한 것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독특한 면을 대변하는 유추를 뛰어 넘어 지난 10여년간 인터넷이 우리 생활을 변화시킨 촉매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인터넷이 이렇듯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에 대해서는 학자와 법률가 그리고 입법자들 사이에 심각하게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첫째, 인터넷은 제한된 경우에만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며 전통적인 경우와 간헐적으로 다르다는 견해이다. 둘째, 인터넷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새롭고 다른 방법을 필요로 하는 디자인과 본질이 충분히 다르다는 견해이다. 셋째, 인터넷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형이상학적 은유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르다고 보는 견해이다.

2 *Reno v. ACLU*, 521 U.S. 844 (1997)

3 Stuart Biegel, *Beyond Our Control?* 26-27.

4. 사이버스페이스를 보는 관점

“사이버스페이스법”이란 사이버스페이스로의 진입을 통제하거나 사이버스페이스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창출하거나 또는 온라인과 사이버스페이스에 진입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헌법 규정, 법률, 판례 등을 말한다.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평가는 각양각색이다. 그런데 사이버스페이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전통적 견해, 중간적 견해, 그리고 지리적·시간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공간으로 보는 견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전통적 견해

전통적 견해는 사이버스페이스란 물리적 공간과 다른 공간이기는 하지만 큰 차이점은 없으며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된 사회 현상을 부풀려 얘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⁴⁾ 인터넷을 단지 약간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견해에 의하면 사이버스페이스는 그 자체가 귀찮은 용어이다. ‘사이버스페이스’ 용어 그 자체는 최소한 다른 공간을 의미하며 이것은 재미있는 은유일지는 몰라도 현실을 적절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⁵⁾ 이 견해에 의하면 인터넷은 다방면에서 압도적으로 독특하지만 결국 컴퓨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에 지나지 않는다. 분리된 또는 다른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결코 사이버스페이스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 다른 컴퓨터를 접속하는 것이다. 웹사이트나 쌍방향 토론 광장은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특정한 곳에 위치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화된 대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뉴미디어의 결과로

4 Jane Ginsberg, *Putting Cars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Authors, Exploiters, and Copyright in Cyberspace*, 95 Colum. L. Rev. 1466 (1995).

5 Jack L. Goldsmith, *Against Cyberanarchy*, 65 U. Chi. L. Rev. 1199 (1998).

삶의 방식이 변화할 수 있지만 현행의 법과 규제는 대부분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분쟁에 적절하다. 결국 이 견해는 현행의 규제 원칙을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행동하였던 것과 똑같이 행동하고 인터넷이 존재하기 전에 행하던 것과 똑같이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Volokh은 이러한 전통적 견해의 대표자이다. 그는 커뮤니케이션 혁명에 열렬히 찬성하며 미래의 많은 변화를 예측하는 사람이지만 인터넷이 다른 공간이라는 주장에는 반대한다.⁶⁾ 예를 들면, 그는 디지털 세계란 새로운 규제의 발전을 필요로 하는 급격한 변화를 촉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한다. 전통적 견해를 지지하는 그룹은 간헐적으로 사이버버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전자적 환경, 또는 신기술이라는 용어를 보다 더 선호한다.

나. 중간적 견해

중간적 견해는 사이버스페이스가 디자인과 활동 면에서 구별되는 별도의 가상공간이며, 이것은 광범위하고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이해한다.⁷⁾ 이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무질서를 용인하는 자유주의적 문화와 공개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간적 견해를 취하는 그룹은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용어에 상당히 우호적이다. 디자인 관점에서 네트워크된 환경의 다른 점은 이러한 매체에서 상호작용을 지배하고 즉시 일대일, 다대일, 다대다로 즉시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독특한 조합이며 물리적 거리로부터 의사소통의 독립이며 의사소통에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네트워크된 환경을 별도의 가상공간으로 인정한다. 중간적 견해의 주창자는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장소를 다른 공간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설명한다. 그것은 개념적으로 다른 것이며 법적으로도 다른 곳이며 물리적으로도 다른 곳이다. 적절하고 일반적인 디자인으로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수용하는 것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별도의 공간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6 Eugene Volokh, *Technology and the Future of Law*, 47 Stan. L. Rev. 1375 (1995).

7 Lawrence Lessig, *The Path of Cyberlaw*, 104 Yale L. J. 1743 (1995).

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그룹에 의하면 사이버스페이스는 은유 그 이상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익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타인의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다르게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타인을 마주 대하지 않는 가상공간에서 좀 더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무질서 또는 무정부주의적인 행동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용인될 것이며 시대와 내용에 구애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 극단적 견해

극단적 견해는 사이버스페이스를 지리적·시간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공간으로 간주한다.⁸⁾ 이것은 지리적 거리와 시간을 초월하는 별도의 형이상학적 공간이며, 신체의 물리적 이동 없이 정신을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컴퓨터는 새로운 관계와 행동이 일어나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며 물리적 거리를 부정하는 스페이스 머신(space machine)이다. 또한 컴퓨터는 현재의 우리의 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는 타임 머신(time machine)이기도 하다.⁹⁾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창설자인 Perry Barlow는 사이버스페이스의 독립선언문을 만들기까지 했다.

5. 결론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법적으로 어느 특정한 국가의 법률을 사이버스페이스에 적용할 것인지, 또한 현실의 세계를 기초로 한 법을 그대로 사이버스페이스에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까지 전 세계의 법률체계는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결합과 비형식적인 결합을 통하여 상호 발전하여 왔다. 전자의 예로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서만 구속력

8 M. Ethan Katch, Law in a Digital World (1995).

9 M. Ethan Katch, Cybertime, Cyberspace, and Cyberlaw, The Journal of Online Law, Art. 1, Para. 56 (1995).

을 가지는 쌍무 또는 다자간 조약 또는 협약에 의한 교류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개별국가 사이에 어떠한 형식적인 결합의 요소는 존재하지 않지만 각 국의 법체계 속에 내재하는 유사한 법 원칙 또는 법적 수단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은 국경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국내법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은 이와 관련된 법적 의미나 정책들이 전 세계적인 합의를 필요로 할 정도로 기존 법체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통적인 법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법 이론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주권국가는 고유한 법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주권국가를 특징짓는 요소는 디지털 시대가 등장하면서 희석되고 있다. 즉 정보화된 네트워크 환경 아래에서는 전자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화된 공간이 형성되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행동 또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행동에 적합한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이 생성되게 된다.

오늘날 정보의 활용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정보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초래되었고, 이제는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일차적 진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의 대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많은 법적인 논쟁들이 제기 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가 하나의 법률체계를 갖는 장소인가? 그 내용은 정확히 확인될 수 있는 것인가? 인터넷은 그 역사가 대단히 짧아 이에 관한 국내법이 등장한 것도 최근의 일이며,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말이 되어버렸지만 얼마 전까지는 인터넷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대(law-free zone)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 현재도 인터넷이나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정의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 분야의 법은 아직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 속에 사이버스페이스는 점점 우리에게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 다가오고 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문제들이 이제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으며, 이 때 새로운 법제도의 적용이 과연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같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하여야 한다.

결국 사이버스페이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현실 공간의 법만으로 아우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시간과 공간상으로 스페이스 머신, 타임 머신 같은 존재도 아니다. 결국 사이버스페이스는 디자인과 활동 면에서 현실의 공간과 구별되는 별도의 가상공간이며, 이것은 광범위하고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무질서를 용인하는 자유주의적 문화와 공개성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견해는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법적 규율을 위해서는 전통적 견해, 중간적 견해, 극단적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평가한 후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는 모델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